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93
----------	-----

발의연월일 : 2008. 5. 14.

발의자 : 김기석 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를 하빈면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대구교도소의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교도소가 소재한 화원읍은 급속한 인구 증가와 택지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주거·상업지역의 도심지로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 하빈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이전 유치를 요구함에 따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구교도소의 이전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붙임 :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1부. 끝.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정의사회 구현과 인권 존중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한 법무부장관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성군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일류국가로의 비전을 추구하는 국가발전 전략에 발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구도시계획에 즈음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교도소가 위치한 화원읍은 급속한 인구 증가와 택지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주거·상업지역의 도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1971년 현 위치에 이전되어 지금까지 37년간 재소자의 재활을 위한 법무 교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변화 및 도시의 팽창으로 이제는 대구교도소가 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건전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 균형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화원읍 번영회 등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대구교도소 이전촉구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하빈면 번영회가 주관이 되어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지역으로 유치코자 지역 거주주민 19세 이상 3,152명을 대상으로 유치건의 서명을 받은 결과 71.6%인 2,25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하빈면은 전체 면적의 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구 도심지의 근교에 위치해 있으나 달성군의 타 지역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담보상태에 있는 비교적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구교도소를 유치하여 지역 발전과 활로를 모색코자 함은 참으로 고무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교도소의 이전을 위한 대상지역이 주민 여론에 의해 형성된 만큼, 현재 도심지에 위치한 대구교도소의 이전 요구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상호 검토하여, 달성군의 숙원사업이 원하는 시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달성군의회에서는 현재의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지역으로 조속히 이전하여 주실 것을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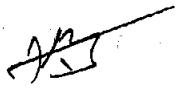

2008년 5월 1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 김기석 의원 외 2인 발의 -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 기 석	김 기 석	
김 순 호	김 순 호	
채 명 지	채 명 지	